신앙칼럼

주님의 기도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저에게는 참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아버지라 불러 본 기억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저에게는 쉽게 나오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친히 저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30여년 전 성령 안에 삶 세미나에서 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낯설고 친숙하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호칭, 그러나 이제는 참 푸근하고 든든하며, 자상하고 다정함도 느껴집니다. 아!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니, 나는 언제라도 "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고, 고민을 털어 놓을 수도 있으며, 투정도 불평도 할 수 있구나! 하느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 오직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활짝 걷혀진, 아무것도 가려짐이 없이 만나 주시는 아버지, 정말 저는 복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유다인들은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도나이"가 아니라 "하느님"이라 부르라 하시니, 죄를 속량받은 우리에게는 "지나친 사랑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 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기쁘고 자랑스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이름이십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 안에 "나는 너를 위하여 있는…" "나는 너 때문에 있는 …" 이란 숨겨진 의미가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이 땅의 모든 것들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을 줍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빛이 저에게 비춰졌으니, 저의 참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빛을 사랑합니다. 그 빛이 제 안에서 영원히 빛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빛이며 어둠을 밝혀 줍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사는 것, 곧 빛 안에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시작이며, 마침내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소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짐을 압니다. 하느님의 뜻은 완전하시니 불완전한 것도, 잘못된 것도 없으십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아멘! 감히 불완전한 제가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살고 있기에 예수님께 의탁하며 도전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당신의 손을 잡고 도전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살며, 제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시니 오늘도 완전을 향한 뜻을 주님 뜻 안에서 세우고 도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을 이루고자 하는 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나의 아버지!

글 / 임문수 마르꼬

연중
제 31주일

2023년
11월 05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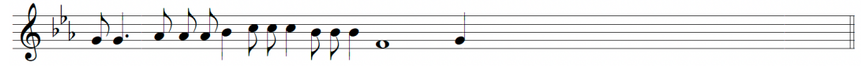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시는 소년 예수〉
알브레이트 듀러, 1506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말라키 예언서1,14ㄴ-2,2ㄴ.8-10

 # 화답송 시편 131(130),1.2.3



후렴·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7ㄴ-9.13

 # 복음 환호송 마태 23,9.10 참조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복음 마태오23,1-12

 # 성가번호 입당 329 봉헌 513, 129 성체 178, 162 파견 229

성 당 소 식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김순분(안나)	- 오옥자(데레사), 오경선(원선시오) 가족, 박재영(요아킴) 가족, 성가대, 정 데레사, 박 스테파노 가족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이긍주(베드로)	- 가족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로철(야고보)	- 가족
• 허 복(요한)	- 가족
• 김식(요셉)	- 송진영(마리스텔라)
• Yang, Zeyong	- 송진영(마리스텔라)
•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 순교자들의 모후 Pr. 일치의 모후 Pr.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서경호(대건 안드레아) 가족
• 김삼식(베드로)	- 서경호(대건 안드레아) 가족
• 채미영(데레사), 채희백(바오로) 가정	- 이남숙(크리스티나)
• 이남숙(크리스티나)	- 채미영(데레사)
• 방진숙(데레사)	- 임 안나
• 김성은(마리안나)	- 김태경(카타리나)
• 박락준(베드로)	- 가족, 최정원(레지나), 이보현(요안나), 이윤석(리처드) 가족
• 이가현(카타리나)	- 최정원(레지나)
• 황태진(필립보)	- 한상철(빈첸시오)
• 신설 소년 레지오 은총의 샘 Pr. 단원들	- 꾸리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44명)..... $1,332
- 교무금.....$3,180

채희백(11-12)	전광수(9-10)	박재영(10-12)
이기순(7-12)	백상헌(11)	임문수(11)
박병태(11-12)	염기선(10)	오용덕(9-10)
서경호(11-12)	이승권(7-12)	

- 감사헌금, 익명 $4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방진숙(데레사)
정수지(아네스)	송희수(글라라)

2차 헌금

• 11월 12일: 유틸리티

친교 봉사 일정

• 11/19썸머셋 • 12/17 에디슨 • 1/21 올드브릿지

11월 썸머셋 구역 빵과 포도주 봉헌자

• 11/5 박재영, 박안나 • 11/12 이대우, 이재성
• 11/19 박병태, 조현실 • 11/26유병기, 유용희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주소록 갱신을 위한 양식을 배부합니다. 작성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 주일 미사 후 교구 묘지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Rosary Altar Society 미팅

•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주일) 오전 10시 친교실 (약 40분 진행)
• 다음 미팅 일시 : 12월 3일 (주일)
• 미팅 시간 동안 친교실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단 교육

• 일시 및 장소: 11월 5일(주일) 미사 후 성당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1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4/4분기 전체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에디슨구역 모임(구역장: 성순영 라파엘라)

•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반석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 11월 18일(토) 오후 12시 친교실

럿거스 구역 모임(구역장: 김세현 스텔라)

•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노스브런스윅 구역 모임(구역장: 변인순 엘리자벳)

• 일시 및 장소 : 11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메타천 구역 모임(구역장: 허정 아나스타시아)

• 일시 및 장소 : 12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구역장 연락처 : 732-718-4569

유스그룹 Bake Sale

• 일시 및 장소 : 11월 1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 음료가 제공됩니다.
•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개 본당(에디슨,이튼타운,프린스톤) 합동 레지오 단원 영성 일일 피정

• 지도 : 장재명 파트리치오, 레지오 교육협의회 지도신부님
• 일시와 장소: 11월19일(일) 오후 3시~5시 30분 OLM 성당 친교실
• 대상: 레지오 전 단원(행동/협조)

성 당 소 식

Holy Name Society 주관 가을 50/50 Raffle 행사

• 본당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한 50/50 Raffle 행사 안내문과 티켓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메일로 티켓을 받지 못하였거나 추가로 티켓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추첨 일시 및 장소 : 11월 18일(토) 오후 4시 미사 후 친교실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2023 성탄 맞이 성가/크리스마스 캐롤/ 생활성가 경연대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25일(월) 성탄 미사 후 친교실
• 구역별 2인이상 참가(독창 불가)
• 성가/크리스마스 캐롤/생활성가/신앙 관련 건전 가요에 한하여 구역별로 1곡 경연
• 시상: 1/2/3등 및 특별상

소년 레지오, 은총의 샘 Pr.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지도해주실 성인 단장님과 부단장님, 소년소녀 단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복사복 세탁을 해주신 백용숙(카타리나)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씌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

말씀의 전례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1,14ㄴ-2,2ㄴ.8-10

정녕 나는 위대한 임금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민족들은 나의 이름을 경외한다.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히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2,7ㄴ-9.13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23,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SCAN ME
가스펠툰